

“등골이 서늘하게”

계속되는 폭염에 방송계 호러장르 잇달아

호러 로맨스 ‘러블리 호러블리’ 미스터리 물씬 ‘오늘의 탐정’ ‘대탈출’ ‘셀왕썰래’ 등 예능도

불볕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다음주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된 가운데 방송계에서는 드라마와 예능 가릴 것 없이 ‘호러’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드라마 중에서는 가장 먼저 첫발을 댄 KBS 2TV 월화극 ‘러블리 호러블리’와 9월 5일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수목극 ‘오늘의 탐정’, 9월 12일 OCN에서 선보일 수목극 ‘손 더 게스트’가 눈에 띈다.

‘러블리 호러블리’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호러와 로코(로맨틱코미디) 장르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할 것인가가 극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됐다.

19일 기준 4회(프리미엄CM 제외 2회)까지 방송한 가운데 아직 시청률이 5%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노련한 박시후-송지호 조합은 불만보다는 평을 얻고 있다.

첫회부터 필립(박시후 분) 어머니가 울순(송지호 분)과 운명을 바꾸는 장면이나, 풀리지 않는 인생에 절망한 울순이 어머니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다 기적처럼 대문을 완성하는 장면에서는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강조한 연출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기대와 달리 호러 요소가 많지 않고, 호러보다도 미스터리가 가까운 데다 코미디와의 조합도 어중간하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

‘러블리 호러블리’에 비하면 ‘오늘의 탐정’은 좀 더 본격적으로 호러와 미스터리 요소가 강조된 작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다니엘과 박은빈, 이지가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 드라마는 귀신을 잡는 탐정 이다일(최다니엘)



갑 모르는 사나이의 절규



러블리 호러블리

과 열혈 조수 정여울(박은빈)이 의문의 여인 선우혜(이지아)와 마주치며 기괴한 사건으로 빠져드는 내용이다.

속을 알 수 없는 탐정 이다일은 스틸컷만 봐도 음산한 느낌을 주며, 무엇보다 ‘귀신을 본다’는 설정이 있어 컴퓨터그래픽이 어떻게 구현될지 궁금함을 안긴다.

최다니엘 역시 홍보사를 통해 “연기할 때 생각지도 못한 감격과 소름이 들 때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늦여름 시청자들에게 오싹함을 선물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스릴러 장르 특성상 극 곳곳에 반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손 더 게스트’는 방송 전부터 ‘한국형 엑스시스트’로 불리며 화제가 된 만큼 퇴마

등 호러 요소를 통해 짜릿함을 선물할 예정이다. ‘보이스’ 시즌1과 ‘블랙’ 등으로 특유의 거칠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연출을 보여준 김홍선 PD는 이번엔 ‘보이스’에서 만났던 김재욱과 최근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로 주목받는 김동욱, 그리고 정은채와 손을 잡았다.

이 드라마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기이한 힘으로 벌어지는 범죄에 맞서는 영매와 사제, 형사 이야기를 그린다. 인간의 일그러진 마음에 깃든 악령을 쫓는 한국형 리얼 엑스시스트 드라마로, 엑스시스트와 사제니즘의 결합이 섬뜩한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탈출 게임을 소재로 한 tvN ‘대탈출’에서는 최근 ‘악령감옥’ 편을 방송해 마니아들 이목이 쏠렸다. 6명 멤버는 미스터리한 별장으로 인내대 악령이 들끓는 콘셉트의 별장에서 ‘분신사바’에 도전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체험했다. 무서운 밑살을 탈출하기 위해 끈끈한 팀워크를 선보이다가도 급박한 상황에 몰리면 서로 떠미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면서 시청률이 2%(닐슨코리아 유료)에 육박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코미디TV 미스터리 토코소 ‘우주적 썰왕썰래’는 최근 귀신 편 녹화 중 기이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알려 호기심을 자극했다.

제작진은 “토코 중이 무도 없는 공간에 가만히 놓여있던 물체가 갑자기 떨어지고 기이한 소음이 들려 출연자와 제작진이 모두 공포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탐정



왼쪽부터 김상욱, 유희열, 유시민, 김진애, 김영하.

시즌 3으로 돌아온 ‘알쓸신잡’… 고대 문명 여행

소설가 김영하·김진애 박사 출연

tvN은 예능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시즌3(이하 ‘알쓸신잡3’)을 오는 9월 21일 처음 방송한다고 최근 밝혔다.

‘알쓸신잡’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잡학박사’들과 가수 유희열이 각자 지식을 방출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수다를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시즌 2는 유희열과 유시민, 황교익, 유현준, 장동진 등 다섯 명의 수다 여행을 담아내 첫 방송부터 시청률이 6%를 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시즌3에서는 유희열이 그대로 진행하며 작가 유시민 역시 함께한다. 또 시즌1에서 호평받은

소설가 김영하가 돌아왔다. 아울러 MIT 도시계획학 박사 김진애가 출연해 건축과 예술, 역사와 문학을 아우르는 지식을 뽐낼 예정이다.

김진애와 함께 양자역학을 사랑하는 물리학자 김상욱이 ‘과학박사’로 합류한다. 그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물리학을 일상으로 끌어들이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제작진은 “고대 서양 문명의 중심인 그리스 아테네, 르네상스 건축과 예술의 본고장 이탈리아 피렌체,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세계적 환경 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배경으로 생생한 수다 여행이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폐창’으로 승부한다… tvN 음악 예능 ‘300’

총 상금 1억… MC 강호동

허참·김형석 등 심사위원 참여

tvN 새 음악 예능 프로그램 ‘300’이 오는 31일 오후 7시 4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출연진과 심사위원단을 최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뮤지션과 그 뮤지션을 응원하는 300명이 한팀이 돼 ‘폐창’ 대결을 하는 내용이다. 상금은 총 1억원이며 뮤지션으로는 김연자, 바이브 윤민수, 휘성, UV, 로꼬와 그레이, 아이린, 러블리즈, 위키미키가 출연한다. 진행은 개그맨 강호동이 맡는다.

또 심사위원단으로는 MC 허참과 작곡가 김형석, 작사가 김이나, 안무가 리아킴, 모델 문가비가 나선다.



권성욱 PD는 “각 전문분야 심사위원들의 5인 5색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때로는 촌철살인으로, 때로는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심사평들이 ‘300’ 무대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18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아시아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12]	00 KBS 뉴스 12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재)			
[2]	50 전라도 매력청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3]	40 공감다큐, 사람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열린공간 톡Talk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00 SBS 뉴스특보 남북 이산가족 상봉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20 여기는 자카르타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토크콘서트 화통
[6]		00 영화가 좋다 50 2TV 생생정보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50 끝까지 사랑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제보자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러블리 호러블리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페셜	
[11]	00 KBS 뉴스라인 40 다크세상	10 안녕하세요	50 최중우들 한국 유럽기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3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 UHD 특선 다크 라이프 오브 닉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달걀장과 애호박찜>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하객유람기 루산>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EIDF 2018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실크로드의 아이들-푸남의 행운
07:30 띠띠뽀 띠띠뽀	12:35 EIDF 2018
08:00 당동댕 유치원1~2	타지마할 호텔로의 귀환
08:30 몬카트(재)	13:50 EIDF 2018
08:45 방귀대장 뽕뽕	- 마지막 별뚝군
09:00 뽕뽕뽕 뽕뽕	15:30 EIDF 2018 - 보이콧 1963
09:15 뽕뽕뽕 노래해요	16:05 EIDF 2018 - 가족 비디오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6:15 뽕뽕뽕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6:30 방귀대장 뽕뽕(재)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댕 유치원1~2(재)
	17:15 마샤와 곰
	17:30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토크! 보이콧1~5
	19:00 몬카트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멋진 신세계 말레이시아 1부 어디라도 좋아>
	21:30 한국기행
	<들리나오, 여름 소리 1부 광도, 여름 보물을 찾아서>
	21:50 EIDF 2018 - 마지 도리스
	23:50 EIDF 2018 - 오지의 불리
	24:25 EIDF 2018 - 월라의 선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0일(음 7월 10일 甲申)	
	36년생 효과가 커진다. 48년생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60년생 한 곳에만 제대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2년생 사소한 것에 얽매었다면 큰 일을 놓치는 법이다. 84년생 핵심 가치를 집약할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72, 44		42년생 가지 않는 길을 살펴본다면 얻는 바가 있으리라. 54년생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마당이다. 66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78년생 체면이 서지 않으리라. 90년생 가까운 곳에 분명히 하자가 있을 것이니 잘 살펴보아라. 행운의 숫자 : 07, 56
	37년생 가장 중요한 관건을 놓치지 말라. 49년생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다면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다. 61년생 절대로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만 한다. 73년생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85년생 중도가 가장 무방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4, 37		43년생 예비 작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 55년생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니라. 67년생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 79년생 진정 시키느라고 애를 먹을 수다. 91년생 금권에 휘둘릴 수도 있는 어려움이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 28, 72
	38년생 배후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50년생 가정이 실상이 된다. 62년생 숙명적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야만 할 형편에 놓일 것이다. 74년생 작은 것을 무시하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86년생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오만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3, 86		44년생 수효가 아니라 실속임을 분명히 알자. 56년생 바라만 보아도 황홀할 것이다. 68년생 추진하다 보면 해몽의 의문점이 저절로 풀릴 것이다. 80년생 절제한다면 성숙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92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용감하게 응대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0, 43
	39년생 기쁨을 나누는 행운이 따른다. 5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용이하다. 63년생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겠다. 75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으리라. 87년생 기저부터 문제점이 보이니 세밀하게 관찰하고 점검해 나가야겠다. 행운의 숫자 : 38, 53		45년생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7년생 내버려 둔다면 우려하였던 바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69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81년생 구조와 형태가 특이할 것이니 착오 없어야겠다. 93년생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행운의 숫자 : 75, 96
	40년생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 하리라. 52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64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76년생 창의성과 개성의 발현이 절실한 요구 된다. 88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80		34년생 실용성에 기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46년생 날이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58년생 형식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다. 70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행운의 문이 열리는 기쁨을 맞이하겠다. 82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허점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95, 98
	41년생 자체에 확실하게 정산하는 것이 길조를 부른다. 53년생 운운 되어야 할 범위를 지나쳤을 때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65년생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77년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다. 89년생 소용 없는 일이니 내버려 두라. 행운의 숫자 : 61, 28		35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47년생 일목요연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59년생 부단한 탐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하리라. 71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83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무용지물이다. 행운의 숫자 : 71, 03